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 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미가서-

## 포기하지 말라

(미가 1:1 -16)

소선지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백성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한 책입니다.

미가서의 역사적 배경은 열왕기하 18 -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앗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북 왕국 사마리아를 침략했습니다. 사마리아는 포위를 당하여 항복을 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로부터 8년 후에 살만에셀의 후계자인 산헤립 왕이 남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 산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앗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왕하 19:10). 히스기야 왕은 이 편지를 듣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 간곡한 기도를 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날 밤 18만 5천 명의 앗수르 군대가 전멸했습니다. 이 시대에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이같이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묵시였습니다.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고, 주전 850년 이전의 사람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귀족 출신이었다면 미가는 아모스와 더불어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농촌 출신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낯선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남 왕국의 멸망과 북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 묵시를 받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 1. 사마리아의 타락상

“백성들이 너희는 다 들을지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지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2절).

미가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부릅니다. 미가 선지자는 성전에 계시는 주님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재의 처소를 성전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3절).

사마리아는 교만으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 곧 교만한 사람들을 짓밟으십니다. 하나님의 밟으시는 발아래서 산들은 녹아버리고 골짜기가 갈라지게 됩니다(4절). 이것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진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것밖에는 보지 못하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6절).

‘내가’, 곧 하나님께서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7절). 음행은 영적 음행, 곧 우상숭배와 같은 죄로 간주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미워하시므로 사마리아는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떠났고, 심지어는 앗수르가 침략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기물들을 앗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감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왕하 17장).

### 2. 죄의 파급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먼저 북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어서 남 유다가 망했습니다. 죄는 파급이 됩니다. 북쪽의 죄가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 같이 애곡하고 타조 같이 애통하리니”(8절).

선지자는 타조처럼 크게 울면서 회개를 재촉합니다. 이스라엘은 자다가 입지도 못한 채 벌거벗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선지자는 들개처럼, 타조처럼 울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선지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지적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이다 사야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뱀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10-11절).

가드는 블레셋 지방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블레셋 원수들이 기뻐할 터이니 그 곳에는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빌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로 아람다운 곳이나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야난은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름과는 달리 사야난은 앗수르에 갇혀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에셀은 머물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 뱀에셀 역시 안식할 수 없는 장소가 되고 맙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도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름을 받았으면 이름값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16절).

미가 선지자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삼대에 걸쳐 약 20년간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20년 동안 울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재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이 망했다가 다시 부흥하는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요담과 아하스 왕 시대를 지나 히스기야 왕 때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미가는 적어도 20년 혹은 25년 동안 참고 기다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세계 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후에 모교로부터 연설을 요청 받았습니다. 그는 한참 후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코 결단코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give up)” 너무나도 유명한 연설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25년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이 말씀을 믿고 주님만을 향하여 전진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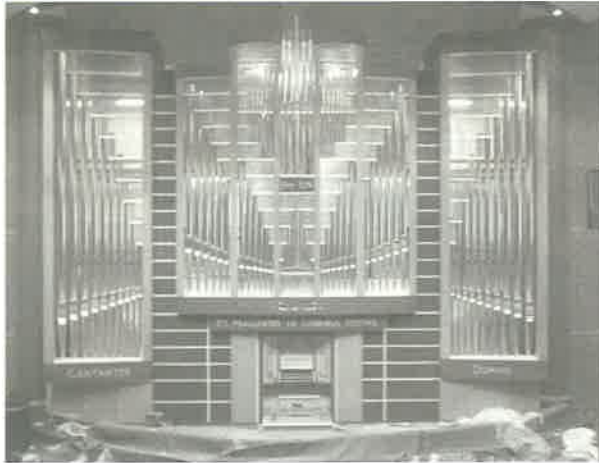
# 오늘 파이프 오르간 휘장 제막식 갖는다

## 주일 I · II · III부 예배 시간 5분전에

본당의 파이프 오르간이 휘장을 견고 공식적으로 교회와 모든 성도 앞에 첫 선을 보이게 되는 휘장 제막식을 당초 오는 6월 29일 주일에 갖기로 했으나 일정을 앞당겨 오늘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 5분전에 갖게 되었다.

성도들의 기도의 동참으로 진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순조로이 진행 되어 무려 2주간의 공사 일정을 앞당겨 오늘 휘장 제막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제 파이프 오르간 설치 공사는 오는 9월 중 모든 공사를 완료하게 될 때까지 더욱 세밀하고 정교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성도들의 더욱 뜨거운 기도의 동참을 요청한다.



# 홍해작전 10일째 진군 중

계속되는 성도들의 기도의 열기로 본당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와 경제위기, 사회의 타락과 가정의 붕괴 등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 이때 기도로 홍해를 가르려고 새벽을 깨우고 나와 기도의 불을 밝히는 성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매일 새벽 5시, 본당에 모여 7대 공동 기도제목과 개인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로 홍해를 가르고 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제목이 너무도 많은데 아직도 홍해작전에 참가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이때,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만나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기 바란다.

# 2003년 상반기 서울 성경대학 수료식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3월 마지막 주에 시작되어 총 10주간의 학과 일정을 마친 2003년 상반기 서울 성경대학 수료식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금번 서울 성경대학은 많은 성도들의 큰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총 102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2003년 상반기 서울 성경대학 수료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열왕기상아반(11명)

김은태 박경희 박두영 유을상 윤숙희 이순희 이종창 전행자 정병무 조동완 조정옥

### 에스겔 반(26명)

김일석 김규순 김미혜 김병승 김연화 김은순 박순복 박종숙 박현영 서중숙 신종수 유을상 유중관 윤복순 윤찬오 이경구 이난화 이미송 이선옥 이영희 이정연 장두현 정연택 정혜승 한명순 홍재식

### 요한복음 반(18명)

김정순 김진희 노명옥 박순복 박현영 서중숙 석상화 유성일 이경구 이덕희 이민숙 이영자 이정연 정영옥 정유선 주화인 최용걸 최일춘

### 디모데전후 반(19명)

김찬진 박경희 박두영 서경에 석춘희 오충례 유을상 이관규 이덕희 이동만 이순희 이인숙 임송자 임옥균 전행자 정병무 최규초 최형열 최홍렬

### 교사양성 반(5명)

신봉하 안명덕 이상은 이종창 전숙향

### 교구일꾼양성 반(10명)

김정순 남태영 낙이선 배병이 삼명희 이금순 임분도 전원순 정효자 하옥봉

### 찬양대양성 반(13명)

김도훈 김원용 박두호 배승우 신봉하 신영순 원용규 이민숙 이윤진 임낙식 전숙향 정병무 최임수

# 주기도송 후에 퇴장토록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주기도송이 끝나고 오르간이나 찬양대의 후주가 이어질 때 모든 성도는 자리에서 움직인다.

이로서 설교자를 비롯한 부교역자들과 모든 예배위원들은 주기도송이 끝난 후 이동하게 되며 성도들도 후주를 들으면서 퇴장을 하게 된다.

##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독

이윤영 권사(5교구) 김현주 권사(8교구)

1독

고영철 집사(8교구) 김은애 권사(9교구)

이성애 권사(9교구) 황노전 권사(9교구)

조정옥 집사(11교구) 김정희 권사(11교구)

김정호 집사(12교구) 탄금희 권사(13교구)

## 반핵 · 반김(정일) ·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6.25국민대회

-6월21일(토) 오후 5시 서울 시청 앞광장-

6.25 사면 발발 53주년을 앞두고 우리조국에 끊임 없는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북한의 핵과 김일성의 대를 이어 계속하여 주민을 탄압하고 굶주림과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김정일의 횡포를 기도로 해결 받기 위하여 오는 21일(토) 오후 5시 서울 시청 앞광장에서 반핵 반김(정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6.25국민대회'를 갖는다.

이 날 행사는 1부 나라를 위한 기도회와 2부 6.25 국민 대회의 순서로 진행되어질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요청한다

## <전반기 전도자 시상한다>

-오는 7월5일(주) 찬양예배시간에-

70인전도대를 선두로 교회 인근 지역에 지속적이고 활발한 전도활동을 펼치고 있는 교회는 오는 7월 6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전반기 동안 전도에 힘써 수고한 성도들을 시상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에따라 6월 29일(주)까지 전도현황을 정리하여 이를 가지고 시상하게 된다. 전도에 진력을 다하는 성도들은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믿으며 더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담대함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 <교회학교 소식>

-유년부-

유년부의 학생들이 서울 강남노회 아동부 연합회 주최 5월 어린이 대회에서 상을 받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을 한다.

그림 그리기 -금상- 이유빈(3학년)

성경외위쓰기 -은상- 김정훈(1학년)

-어린이 수요일예배부-

어린이 수요일예배부에서는 어린이들의 미술교육을 위한 도서를 기증받고 있다. 순수 미술, 건축 등에 관한 사진과 그림책, 화보 잡지 등 어떤 것도 가능하다.

어린이 수요일예배 일정

예배와 미술 교육: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 6시 20분

장소: 603호실

대상: 서울교회 모든 어린이와 이웃 어린이

연령: 유아부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 “나의 흥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자”

## 정병우 장로 (중해작전 참모장)

지난 6월6일, 새벽을 깨우는 개전의 북 소리와 함께 본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은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진군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이 찬양하는 자들의 가슴은 설레임과 승전의 벽찬 기대감에 가득 찼음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주옥같은 요리문답 강해는 진리를 깨달음에 단비가 되었고 의례적인 신앙생활에 생동력을 불어 넣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마다 부르짖는 기도 속에 병마와의 치열한 전투소리가 들리는 듯 하며, 또한 여러가

지 모양의 생업, 가정, 나라, 교회의 흥해 등으로 주님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간구하라 하였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며, 찾는 자는 얻을 것이라 말씀 하셨사오니, 모든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순종의 자녀에게 차고 넘치도록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라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빌니다.

흥해작전 본부에서는 6월25일 승전을 기념하는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작은 기념품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일 나

뉘 드린 출석스티커를 기도카드에 날자 별로 붙여서 안내에 제시하시면 기념품과 교환해 드립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결단코 충성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상급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승전기를 높이 부르는 그날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 고등부 학교 앞 전도를 마치고

### 박승희 집사(고등부 교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

대지를 축축이 적시는 비 오는 오후 5시.

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오광환 부장 집사님을 비롯한 고등부 교사들은 중앙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정문에서 모의고사 시험을 어렵게 치르고 나오는 지친 모습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물 한잔 들고 가세요.” 라고 학생들을 청하면 학생들은 “왜요?”라며 반문합니다. 우리는 그 학생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예수 믿으세요.”

은마 아파트 앞 서울교회에 나오세요.”라고 한 목소리로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해서 내리는 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호기심 반, 놀라움 반으로 급하게

귀가하던 학생들이 활길을 돌려 하나 들씩 모여들었으며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를 보고는 “예, 한번 가겠습니다. 물 잘 마셨습니다.” 인사를 언젠가 힘들었다는 듯이 생기 있게 하고 갔습니다.

피해가는 학생들, 엉뚱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관심을 보인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열매를 우리 학생들과 나눌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복된 말씀을 아직도 못들은 학생들에게 우리 교사들은 본을 보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힘써서 계속 끊임없이 전할 것입니다.

## 병상 흥해작전

### 오정식목사(3,4교구 담임)

2003년 6월 9일 그 날은 3교구 일제심방의 마지막 날이었다. 3교구 7다락방의 윤용희 집사님, 김인순 집사님의 가정을 심방하게 되었다. 올해 82세가 되신 윤용희 집사님은 98년 4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교회 나오시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후 병세가 많이 호전되셔서 작년 9월에 새 예배당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셨는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해 10월 5일에 아파트 현관에서 산책을 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셨다. 그 이후로는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셔서 병상을 떠나지 못하고 계신다.

그러나 언제나 라디오를 머리맡에 두시고,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등을 통해 이종운 목사님의 설교를 늘 들으시면서 베갯잇을 적시곤 하신다. 그런데 이번 심방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사님의 병상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뭔가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2003 흥해작전 기도 카드였다. 머리 위쪽에는 라디오가 놓여있고, 머리 왼쪽에는 흥해작전 기도카드가 놓여져 있었다. 그래서 부인되시는 김인순 집사님에게 물어보았더니 하루도 빼지 않고 흥해작전이 시작된 그 날부터 7가지 기도제목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들게 되었다. 순간 그 방안의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모든 심방대원들의 마음은 뜨거운 불덩어리를 가슴에 품고 있는 듯 했다.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남다른 집사님께서 얼마나 흥해작전에 참여하고 싶으셨겠는가! 그러나 비록 몸은 병상에 머물러있다 하더라도 마음만은 함께 하겠다는 심정으로 ‘병상흥해작전’을 시작하셨던 것이다. 벌써 흥해작전 기간의 반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반이 남아 있다. 이미 흥해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은 병상에서 흥해작전을 진행하시는 집사님을 기억하며 남은 기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참여하고 있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병상에 머물고 있는 집사님을 대신하여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흥해작전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